

# 전남대학교 청소년철학교실

## 2017년 겨울학기 개강안내

전남대학교 <청소년철학교실>은 자기 자신,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 명	요일/시간	강의형식	강사
1쪽지 고등부	감각의 향연	2018년 1월 16일 개강 매주 화요일 저녁 7:00 ~ 9:00	강의와 토론	임명규 (철학과 박사수료)
2쪽지 고등부	중국 고대사상 이해하기 공자와 맹자	2018년 1월 18일 개강 매주 목요일 저녁 7:30 ~ 9:30	강의와 토론	정상엽 (철학과 박사수료)

### 신청정보

신청기간 : 2017년 12월 21일 ~  
2018년 1월 18일  
강의기간 : 2018년 1월 16일 ~ 2월 8일 (4회)  
수강료 : 무료 (쪽지 당 선착순 20명)  
문의 : [youthphilo@hanmail.net](mailto:youthphilo@hanmail.net)  
010-9884-0166 (백송이)

### 신청방법

- ①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youthphilo@hanmail.net](mailto:youthphilo@hanmail.net)로 송부
- ② 신청확인 안내메일 확인

\* 강의 장소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층 210호 강의실

\* 다음 카페\_ <http://cafe.daum.net/youthphilo> (전남대 철학교실 또는 청소년 철학교실 검색)

 [twitter.com/youthphilo](https://twitter.com/youthphilo)

##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 감각의 향연

많은 사람들이 현대미술을 어렵게 느끼는 것은 작품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식화된 이러한 관념이 오히려 예술을 불편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즐기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이 시간을 보내는 단순한 도구인 것은 아닙니다. 즐거움이 반복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사유가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스스로 즐기는 법에서 시작하지만, 사유를 놓치지 않는 경험입니다. 따라서 제목이 '감각의 향연'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놓쳐버렸던 스스로의 감각을 버리고자 합니다. 때론 진지하게 때론 가볍게 말입니다.

미술사를 간단하게 개괄하고 현대예술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을 정리합니다. 쉽게 볼 수 없었던 도판과 영상 자료를 함께 감상하며 쟁점을 짚어보고,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감각, 취향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해보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00분 ~ 9시 00분
- 강의기간 : 2018년 1월 16일 ~ 2월 6일 (4회)
-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210호실
- 진행: 임명규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사수료)
- 교재: 매 수업 시 수업자료 배부함.
- 참고교재: 임석재,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1890~1940』, 후마니타스  
진중권, 『앙겔루스 노부스』, 아웃사이드  
김남시, 『본다는 것의 의미』, 너머학교  
서동욱,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 문학과 지성사  
크리스토프 멘케, 『미학적 힘』, 그린비
- 수강대상: 17~19세 청소년

**\* 수강인원 : 20명 내외, 수강인원이 5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비고
1	1월 16일	지금 우리의 취향과 개성	강의 및 토론
2	1월 23일	옛 예술의 죽음과 새 예술의 탄생	
3	1월 30일	생각뿐인 예술	
4	2월 6일	추한 예술의 세계	

\* 주우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중국 고대 사상 이해하기 공자와 맹자

고대 중국 춘추시대 인물인 공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사람들의 어진 마음에서 그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전국 시대에 살았던 맹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찾기 위해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맹자는 사람은 본래 선한 존재이며 “인의예지”를 실천하면 서로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가 말한 어진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맹자는 왜 사람은 선한 존재라고 말했을까요? 이 강의에서는 공자와 맹자를 통해서 중국 고대의 사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입장에 서서 공자와 맹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일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강의기간 : 2018년 1월 18일 ~ 2월 8일 (4회)
-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210호실
- 진행: 정상엽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사수료)
- 교재: 매 수업 시 수업자료 배부함.
- 수강대상: 17~19세 청소년

**\* 수강인원 : 20명 내외, 수강인원이 5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비고
1	1월 18일	공자의 인(仁)	강의 및 토론
2	1월 25일	공자의 서(恕)	
3	2월 1일	맹자의 성선(性善)	
4	2월 8일	맹자의 인의예지(仁義禮智)	

**\* 주우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전남대학교 청소년 철학교실

## 1. 청소년 철학교실의 탄생 배경

청소년 철학교실은 2005년 여름부터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빛고을 철학교실>로 출발하였습니다. 이 빛고을 철학교실은 <교사를 위한 윤리학>과 <청소년 철학교실>, <기초 라틴어 강좌>, <기초 희랍어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2006년 전남대학교 철학과가 정부의 BK21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함으로써 더욱 활성화 되었습니다. <빛고을 철학교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철학교실>과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인문강좌>로 세분화되었고, 현재 청소년 철학교실은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과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의 주관으로 각 계절마다 (1년 4학기) 다양한 주제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 2. 청소년 철학교실의 운영 목적

중·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의 의미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 성인들 못지않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기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 혹은 ‘왜 살아야 하는지’ 등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쟁 위주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묻고 대답해볼 기회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전남대 <청소년 철학교실>에서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좁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 넓게는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3. 청소년철학교실 외부강의 운영안내

인문학 교육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청소년 철학교실 개설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청소년 철학교실은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와 협약 하에 강사가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출장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는 1꼭지 당 8회(주 1회, 2시간)로 이루어지며, 원활한 토론을 위해 참여자는 20명 내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 기획 의도나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과 운영방식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철학교실 출장 강의는 지난 2016년 광주·전남지역의 16여개 고등학교에서 28개 분반의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외부 출장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youthphilo@hanmail.net